

“고3 첫 주권행사 꼭 투표합시다”



4·10 총선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눈길

광주교사노조, 고3 유권자 대상 투표 인증샷 퍼레이드 시민단체 거리행진·대학생 ‘플로깅’...청소년 모의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31.28%)를 기록했지만, 광주·전남 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이 “본 투표에도 참여하자”며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고 “굳이 본투표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 지역민들이 많을까 하는 우려에 투표 독려 활동에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첫 투표 고3 유권자 투표 참여 독려도= 올해 첫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광주·전남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8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본투표일인 10일까지 광주지역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참여 인증샷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선거 참여 인증샷 퍼레이드는 고3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개인 SNS에 게시하도록 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고3 학생까지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투표참여

인증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면 그 자체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 고3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YWCA는 8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의 유동사거리 일대에서 ‘22대 총선 광주 YWCA 유권자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유동사거리 일대에서는 YWCA관계자와 자원활동가를 포함해 25명이 본투표 참여독려를 위해 ‘투표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여성보호 및 참여확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리 광주YWCA 과장은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정책을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라며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참여자치21도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권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표 후 인증샷 등을 독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본 투표 하루전날 ‘정권 심판’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9일 오전 전남대 앞에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다. ‘플로깅’(plogging·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모의 투표운동도= 본 투표당일인 10일 투표권이 없는 광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투표운동도 진행된다.

광주YMCA를 중심으로 청소년 단체·시설 및 교

육 단체들은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를 구성,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한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응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모의투표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후 온라인 사전투표 또는 오프라인 본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오프라인 투표소는 광주 5개 구에 설치돼 오는 10일 실제 투표일에 직접 가서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 관계자는 “모의투표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을 직접 찾아보고 공약을 분석해 투표에 참여해보는 기회를 갖고, 살아있는 정치, 참여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



화려한 분수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음악분수가 흥겨운 음악에 맞춰 물줄기를 내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한수원, 엉터리 방사선환경평가 주민공람 강요”

광주전남 환경단체 규탄

한평군을 마지막으로 한빛원전 인근 6개 지자체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8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단체)은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 보완요청은 무시하고 주민공람을 강요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마지막까지 보류하던 한평군은 지

난달 28일 공람을 결정했다. 이로써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 6곳(영광, 무안, 장성, 함평, 고창, 부안)은 모두 주민공람을 결정하게 됐다. 주민공람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는 최신기술기준과 중대사고를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무안과 장성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보완 요청을 하고 주민공람을 보류했지만 한수원은 내용 보완 요청은 지자체의 권한 범위 밖이라며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주민공람을 시작하지 않은 4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체는 “한평군이 적극적인 내용 검토와 보완요청을 했지만 한수원은 본질적 대담을 회피하고 주민공람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며 “현재 법·제도하에서는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어도 공람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어떠한 권한이나 발언권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원전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변경 절차에 대해 지자체의 권한 확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강화, 지역 주민들의 의사 결정 참여와 관리능이 보장 되지 않으면 원전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폐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대 연구진, 알코올 지방간 원인 찾았다

최홍식 교수팀, 독일팀과 공동연구

전남대학교는 최홍식 교수(생명과학기술학부) 국제공동연구팀이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의 핵심인자를 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최 교수 등은 생명공학연구원(KRIBB) 김용훈·이철호 박사 연구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스티븐 돌리 박사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간 손상의 새로운 원인 기전을 밝혀냈다.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 세포막에 존재하는 ‘CBI’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세포 신호전달 과정을 거쳐면서 ‘FGF23’라는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간 손상이 촉진된다.

연구팀은 FGF23이 간을 약화시키므로, 이 호

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면 알코올성 간 손상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FGF23은 주로 뼈에서 생성돼 인산염과 비타민D 대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코올성 간 손상의 핵심 인자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논문은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학술지 ‘Redox Biology’ (영향력지수 11.4, JCR 상위 6.8%) 5월호에 발표됐다.

최홍식 교수는 “FGF23이 알코올성 간 손상을 유발하는 새로운 핵심조절 인자임을 밝혀내고, 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면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 손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동구 ‘문화유산 밤마실’ 함께 할래요?

의병양성소 등 4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12~21일 선착순

광주시 동구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광주 문화유산야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문화유산야행’은 이달 26·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이다.

‘동구 의병양성소’ (코스형 주제 체험), 참여형 연극 ‘동인(東人)’, 미니 퍼레이드 ‘꼬마 의병단’,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투어’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동구 의병양성소’는 조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활약했던 광주 의병과 관련된 소품 및 무기 체험, 식량 만들기 등을 통해 의병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동인(東人)’은 차(茶)를 마시며 역사 속 광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으로,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니 퍼레이드 ‘꼬마 의병단’은 의병 복장을 갖추고 광주읍성을 지키는 의병이 돼 5·18민주광장부터 광주읍성유서까지 행사장 일원을 순찰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투어’는 어린이 해설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역사 투어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밖에도 동구는 의병, 동구의 인물, 독립운동 학생 등을 조명하는 체험·공연·전시 등 8차(夜) 테마 28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광주문화유산야행 누리집(www.gjnight.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